아함경에서 건진 지혜 (제41화)

"까비르의 후광"

〈출전 : 별역잡아함경 제9;169경;2-436중〉

글·그림 한정우
칼라 정 욱



이렇게 들었다 — 정치인의 말

말하는 일 자체도 경계해야

송두율 교수가 귀국하고 나서 온 나라가 시끌시끌하다. 선재는 그가 김철수인지 아닌지, 간첩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다지 관심이 없다. 북한의 고위 관리가 우리나라로 망명하고 양국의 정상들이 가슴을 맞대고 부둥켜안는 이 시대에 그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어제까지만 해도 '위대한 수령님'을 외치던 사람들이 남한에 오자마자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우리 노동자들의 비행기를 폭파시킨 테러범마저도 결혼해서 잘 살고 있지 않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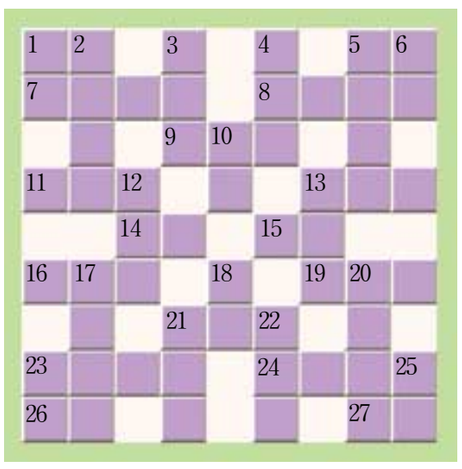
선재가 정작 걱정스러운 것은 송두율 교수 문제를 계기로 '불순 세력이 정부 안에 깊숙히 침투되어 있다'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는 정치인의 입이다. 국가안전기획부 출신이라서 그런지 그 정치인의 말은 늘 우리를 놀라게 한다. 여전히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모양이다. 우리가 모르고 있던 사실을 자세하게 알려주니 말이다. 하지만 늘 근거가 없다. 퇴직한 안전기획부 직원에게 전해지는 정보가 잘못된 것인지, 원래 그 부서는 그런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는 곳인지, 선재는 그것이 궁금하다.

"무서운 불길같이 입에서 나온 말이 내 몸을 태우고 만다. 일체 중생의 불행은 그 입에서 생기니, 입은 몸을 치는 도끼요, 몸을 찌르는 칼이다." 너무나도 유명한 <법구경>의 말씀이다. 노자도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이며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다(知者不言言者不知)"고 하였다. 말하는 일 자체가 경계해야 할 일인데, 더욱이 근거없는 말을 쏟아내는 그 정치인은 어떤 마음일까?

불교에서는 늘 행동과 말과 생각의 세 가지 업을 짓지 말라고 가르친다. 나아가 세 가지 업을 부처님의 그것(三密)으로 하라고까지 한다. 책임지지 못할 말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만도 못하다.

■최원섭(성철선사상연구원 연학실)

상식퍼즐



가로

1. 일이 많음 5. 꽃이 활짝 피다 7. 같은 값이면… 8. 부부사이에는 지켜야 할 인륜의 구별이 있다 9. 장육의 아미타불을 모신 당우 11. 발원하는 내용을 적은 글 13. 몸에 힘이 부치는 증세 14. 계율을 받아 지키는 것 15. 보통의 예에서 벗어난 일 16. 일년 중의 행사를 철에 따라 적어 놓은 기록 19. 시주의 이름을 적은 책 21. 보살심. 위로 법을 구하고 아래로 중생교화에 힘쓰는 마음 23.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 24. 청정무구한 부처님의 진신 26. 법당의 중앙에 모셔진 으뜸 불상 27. 예산 편성 또는 전체의 계산에 넣음.

세로

1. 될 수 있는대로, 아무쪼록 2. 네 가지 큰 서원 3. 경마를 하는 경기장 4. 천부당 000 5.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 6. 각자 따로따로 10. 육식이 육경을 의식할 때 그 소의가 되는 여섯 가지 뿌리 즉, 안이비설신의 12. 문을 지키는 사람 13. 일체 중생을 항상 공포에서 구제하는 보시 17. 마음이 곧 부처다 18. 압도적으로 이김 20. 법신의 공덕이 법계에 두루 비치는 것 21. 덕이 높고 나이 든 비구 22. 마음이 깨끗함 23. 시주를 한 주인공 25. 신의 형상을 나타낸 그림, 조각 따위.

〈442호 「교리퍼즐」 정답〉

격	상		동		급		평	정
일	구	월	심		진	퇴	양	난
	보		원	통	전		감	
번	리	사		달		요	사	채
		명	호		해	충		
포	도	당		성		지	정	의
	탈		시	왕	전		진	
순	일	무	구		철	벽	수	비
전	체		식		수		행	자

육 법 등 (六法燈)




용암사(서울 광진구) 대웅전에 장엄된 육법등

특 징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셨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활용범위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명 및 장엄등
2) 지장단 영가천도를 위한 49재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동원전기 주 소 :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290-1
전 화 : 031)541-1417 / 팩 스 : 031)541-1419
총판 및 대리점 모집

교송 정명주 스님의 작품세계

시방삼세에 늘 나투하고 계시는 부처님의 여여한 모습
- 세계 최초로 교송 정명주 스님께서 친견한 시무상주 시방불 사진입니다.



장소 : 청송주왕산
시간 : 1998년도 AM 9시경
규격 : 가로 51㎝ x 세로 66㎝
가격 : 100,000 원

佛心天地海風

가정에도 사무실에도 사업장에도 喬松 · 鄭 · 銘 · 主 스님의 견여래 사진과 男 · 女 달마도를 걸어보세요.
온갖액운 근심걱정 사라지고 기쁨과 행운이 펑펑 솟는 답니다.
● 佛心 : 부처님 가르침이란
● 天 : 높거라 ● 地 : 깊거라 ● 海 : 넓거라 ● 風 : 바람이려니



규격 : 가로 51㎝ x 세로 66㎝
가격 : 100,000 원



규격 : 가로 51㎝ x 세로 73㎝
가격 : 100,000 원

나무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석가모니불 교송 스님께서 수많은 달마도를 접하신바 사나운 기운이 솟아남을 감지하시고 그원인을 찾던중 달마에게도 짝이 있음을 알아 탄생시킨 세계최초의 女子달마도와 관음 달마도는 주문후 3,4일의 시일이 걸릴수 있음을 참고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경남창원 명주사 방문을 환영합니다.

■입금계좌 : 농 협 821146-52-038830 [예금주 : 정지완]
■연 락 처 : 055-275-1372 / 055-262-0928 ■휴대폰 : 019-574-0928 교송 합장

경남 창원시 중앙동 58-9번지
한국대선불교조계종 명 주 사